

## 참여적 치유 관점으로 본 현대 패션

김 소 희 · 김 윤<sup>+</sup>

덕성여자대학교 의상 ·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sup>+</sup>

### 요 약

현대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최근 미술, 음악, 무용 등과 같은 예술을 활용한 치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패션 역시 패션을 매개로 한 사회적 인간 행동으로 시대를 반영하여 현실과 공존하기 때문에 치유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며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적 치유의 개념을 토대로 현대 패션의 특성을 규명하고 패션이 환경 오염과 과시적 소비의 주범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치유적 개념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미술을 분석하였고 미술 치유 요소를 바탕으로 표현 특징을 도출하였다. 현대미술에서 도출한 표현 특징을 토대로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 패션 흐름을 살펴본 후 표현 분석 기준을 세우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치유 대상을 기준으로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자연환경 치유, 정서적 불안감 치유 세 가지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표현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유형에서는 승화적 특성이 우세하게 표현되었으며 다감각을 활용하여 치유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둘째, 자연환경 치유 유형은 반복성, 참여성을 중심으로 치유적 관점의 패션을 전개하였다. 셋째, 정서적 불안감 치유 유형에서는 공간성을 이용한 유희적 특성이 도출되었고 전반적으로 기술을 활용한 가상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패션의 치유적 기능을 통해 긍정적 시각을 확산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치유적 패션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현대미술의 치유, 패션의 치유적 기능, 참여적 치유

<sup>+</sup>교신저자: 김윤, [yoonkim@duksung.ac.kr](mailto:yoonkim@duksung.ac.kr)

접수일: 2019년 5월 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4일

## I. 서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과열된 경쟁, 위협적인 테러와 혐오 범죄 등 다양한 사회환경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 사고들과 불안정한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치유(healing) 개념이 이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미술, 음악, 패션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패션 분야 역시 시대를 반영하며 치유적 관점의 패션을 전개하고 있다. 패션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 접근 가능성이 높으며 실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적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Lee, 2018), 정신적 질환의 치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Jang & Ha, 2018),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패션 제품의 특성을 도출하는 연구(Lee & Kim, 2019)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이전에도 치유적 기능을 연구 결과의 일부로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Kim, 2013; Na, 2015; Yoon, 2014)들이 존재하지만 치유적 특성 자체에 집중하여 학술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을 치유적 관점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그 흐름을 분석하고 어떠한 특징을 발현하며 전개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표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패션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유적 개념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통해 의류학 연구의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시대와 접목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술을 매개로 하는 치유적 행위는 미술 분야에서 선행되었으며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다. 패션이라는 분야 또한 미술과 같

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술의 치유적 특성을 패션 사례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아직 치유적 관점의 패션 연구는 미술 분야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며 보다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치유적, 심리적 관점으로 정리된 미술 분야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치유의 개념과 배경,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아표현을 통한 예술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미술 치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하여 참여적 치유 미술의 표현 특징을 도출한다. 셋째, 참여적 치유 관점으로 현대 패션의 흐름을 분석하고 치유의 유형별로 사례를 분류한다. 넷째,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패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치유적 미술의 표현 특징을 기반으로 표현 특성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의 현대미술 범위는 전통적인 평면, 입체 미술을 비롯한 설치 미술, 공간 미술, 퍼포먼스 미술 등을 포함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작가는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장 미셸 오토니엘(Jean Michel Othoniel), 에르네스토 네토(Ernesto Neto)이다. 현대 패션의 분석 범위는 치유에 대한 키워드가 화두가 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컬렉션 및 캠페인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학술지 및 학위논문, 관련 서적을 통해 문헌 연구하였고 패션엔(fashionn.com), 패션비즈(fashionbiz.co.kr), 하입비스트(hypebeast.kr) 등 패션 전문 웹사이트, 보그(vogue.com), 바자(harpersbazaar.co.kr), 더블유(wkorea.com), 얼루어(allurekorea.com), 마리끌레르(marieclairekorea.com) 등의 패션 매거진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분석 하였다. 작가 선정 및 현대 패션의 사례 분석 과정에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의상학 전공 전문가 집단(박사 3인)과 함께 진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술 치유와 요소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불안, 고통,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삶의 불가피한 경험으로 작용한다. 어느 시대에도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 불안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해소 방법도 다양하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바로 인간 본연에 내재해있는 있는 창조 욕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Noh, 2012).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치료(curing)라고 말하고 치유는 감정적이고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는 치유를 내면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치료하고 예방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의미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유를, 치료를 포함한 보다 더 큰 범주로 정의하고 미술 치유를 단순히 심리치료 활동에 국한하여 보는 것이 아닌 미술의 창조적인 활동과 심리적인 치유 과정의 관계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 치유는 병이나 상처가 나음을 뜻하는 개념에 창조적 미술 행위가 합쳐진 것이다. 즉, 미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승화 과정을 거쳐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술은 매체적 특성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부로 표출하고 정화하는 치유적 특성을 가진 활동이다. 인간은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고민, 갈등,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깨어진 심리적인 불균형을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미술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성과 그 치유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Han, 2013).

이러한 미술치료가 독립된 분야로 성장하고 미술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이론과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이론이다. 프로이트는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미술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며 꿈속에서 상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는 무의식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다. 이후에, 융은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공통의 상징물을 지니는 보편적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개념을 만들어냈다. Lee(2011)에 따르면 융은 상징적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의식의 창조적 기능을 촉진하며 외상이나 고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술치료는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했다(Jeon, 2014).

미술 치유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치유적 요소를 정리하였다. Choi(2007)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자극을 치유적 공간 구성의 요소라고 정리하였으며 Kim(2011)은 감각 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자연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치유적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감각 자극 요소와 치유적 공간을 연계하여 연구한 Kim(2015)은 예술이 지닌 치유 요인을 반복, 창조성, 승화, 상징화, 전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다감각 자극 요소와 치유적 특성을 연계하여 특성을 정리하였다. 집단 미술 치료를 중점으로 치유 요인을 도출한 Song(2014)은 이미지 표현을 통한 상징, 창작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창조성, 미술 활동을 통해 에너지가 전환되는 승화, 여러 가지 형태의 감각활동, 감각활동에서 비롯된 유희적 특성, 긍정적 정서, 작품의 객관적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성

Table 1. 선행연구별 치유 요소.

연구자(년도)	연구 내용	치유 요소
Monz and Monz(2001)	감각자극과 공간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Choi(2007)		감각자극 요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Kim(2011)		감각 요소와 자연 요소 (빛, 물, 식물, 돌, 흙)
Kim(2015)		반복, 창조성, 승화, 상징화, 전환
Song(2014)	미술 치료	상징, 창조성, 승화, 감각활동, 유희, 긍정, 공간



감각,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등을 치유적 요소로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독일의 실내 건축가 Monz and Monz(2001)는 치유환경 설계를 위해 오감을 통한 긍정적인 감정 유발을 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오감을 치유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감각(오감),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등을 치유적 요소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Table 1).

## 2. 치유적 관점의 현대미술 흐름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 속에는 작가의 개인 무의식의 상징들이 표현되고 사회, 문화적 흐름을 반영한 집단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 긍정적 정서는 일부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으로만 간주되었지만 요즘 사회는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고 요구한다. 최근 미술, 음악, 무용 치료, 마음 수련을 위한 요가, 우울증 관리 등 정서 관리와 관련된 치유산업(therapy industry)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긍정적인 태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Kim(2017)은 “무언가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세계와 대면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힐링 활동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예술적 활동과 결합된 창조적 힐링 방식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p.340). 현재 시대적 페르소나는 치유라는 개념

없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예술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자아 치유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술이 갖는 자아 치유적 기능에 집중하여 예술작품을 사례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치유적 관점의 미술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치유적 관점의 현대 미술작가를 선정하였고 착용을 통한 참여적 부분이 강조되는 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현대미술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Han(2013), Lee(2017), Park(2012), Son(2009)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치유적 미술로 분류하여 분석한 작가는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에바 헤세(Eva Hesse), 귄터 위커(Guenther Uecker),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키스 해링(Keith Haring), 장 피에르 레이노(Jean Pierre Raynaud),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요셉 보이스, 니키 드 생팔, 장 미셸 오토니엘, 에르네스토 네토 등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대표 작품들이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형태를 보이는 작가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의상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박사3인)과 연구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분류된 참여적 치유미술 작가는 요셉 보이스, 니키 드 생팔, 장 미셸 오토니엘, 에르네스토 네토로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치유적 미술 작가 유형별 분류.

작가 (출생년도)	선행 연구
루이스 부르주아 (1911)	Yoon(2010), Park(2012), Lee(2015), Song(2013), Han(2013)
프리다 칼로 (1907)	Song(2010), Yoon(2011), Cho(2011), Park(2012), Lee(2015)
에바 헤세 (1936)	Son(2009), Lee(2015), Han(2013)
권터 워커 (1930)	Son(2009), Noh(2012), Kim(2015)
트레이시 에민 (1963)	Yoon(2010), Jeon(2014)
키스 해링 (1958)	Jeon(2014)
장 피에르 레이노 (1934)	Han(2013)
쿠사마 야요이 (1929)	Noh(2012), Kim(2015), Ryu(2018)
요셉 보이스(1921)	Son(2009), Song(2013), Kim(2015)
니키 드 생팔(1930)	Park(2012), Jeon(2014), Jang(2016)
장 미셸 오토니엘(1964)	Han(2013)
에르네스토 네토(1964)	Lee(2017)



요셉 보이스, 니키 드 생팔, 장 미셸 오토니엘, 에르네스토 네토

### 3. 치유적 관점의 현대미술 표현 사례

예술가들은 그들의 과거에 겪었던 아픈 상처의 경험과 기억을 현재 표면 위로 상기시키며 작품으로 귀결시키고 부정적 감정과 에너지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와 도구들이 등장하고 이는 작가의 작품세계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프랑스의 현상학 철학자인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인식이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사유과정을 거치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각하면서 깨닫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작가들은 회화, 조각, 설치미술, 개념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론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기 치유를 경험하며, 예술 작가의 자기 치유 양상은 과거미술부터 현대미술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가들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형식적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자기 내면을 통찰하고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해방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이 작품의 치유 양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관점이다. 현대미술 작가들은 인간 개인의 자전적인 문제로 시작하여 사회의 불안과 불안정함으로부터 파생되는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자 작품을 통해 상징성을 표현하고 다감각적 체험, 유희적 공간을 제공하여 치유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전위적인 조형 작품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태생의 작가 요셉 보이스는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조각과 행위 예술을 통하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였다. 요셉 보이스는 1960년대 지나친 형식주의에 반항하고 예술과 삶을 통합하는 행위예술 그룹인 플럭서스(Fluxus)의 멤버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퍼포먼스를 다수 선보였다. 1960년대 말부터는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조각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그는 예술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예술가로서, 사회 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요셉 보이스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시대정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1982년 관객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982년에 시작하여 1986년까지 실시하고 그가 죽은 후 1987년에 완료된 『7000그루의 떡갈나무(7000 oaks)』는 나무와 돌을 후원한 사람들이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고 보이스가 마지막 서명을 하며 하나씩 완성시키는 작품이다(Figure 1).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유기체를 끌어내기 위해 작가가 작품을 제공하고 대중들은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 사회가 직면한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로 예술 행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퍼포먼스의 상징성은 작가와 관객과의 실제 관계로 이어져 관객의 상처를 치유하고 달래는 의미로 확장된다(Kim, 2015).

누보 레알리즘(nouveau realisme)의 대표적 작가 니키 드 생팔은 전통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성을 강요하는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1942년 발생한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 증오심,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가지며 자신의 고통을 사격 회화 작품 활동으로 승화시켰다. 1961년 발표된 작품 『내 연인의 초상(Portrait of my lovers)』은 당시 남자친구의 셔츠를 몰래 훔쳐서 판 위에 부착하고 과녁을 머리 부분에 달아 다트를 던질 수 있게 만든 형태였으며 시리즈가 계속되며 그 공격성은 더욱더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Figure 2). 사격 회화는 단순한 예술 퍼포먼스 행위가 아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내적 분노를 해결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 감정의 표출에서 시작된 사격 회화는 점점 그 감정의 대상을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생팔은 처음부터 관람자가 사격 행위에 참여하도록 의도했고, 이러한 관람자의 경험이 작품의 한 부분이 되길 원했다(Jeon, 2014). 반복된 사격 회화

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내면의 분노를 승화시킨 생팔은 더 이상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작품을 전개하지 않았고 생명에 대한 예찬, 여성이라는 주제를 주로 표현하였다. 1998년 개관한 『타로 정원(The Trot Garden)』은 카드놀이에서 등장한 22개의 형상을 생팔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정원으로 화려한 색채를 통해 그녀의 후기 작품의 특징인 생명력에 대한 예찬과 화해라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Figure 3). 그녀는 감상자가 작품의 공간 안으로 들어와 체험하고 작품의 완성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작품을 모두의 미술, 공공의 미술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타로 공원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대중들과 상호작용하여 화합하여 대중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공미술 작품이다.

유리구슬 작업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품 역시 유년 시절의 개인적인 상처에서 시작된다. 성적 소수자로서 겪어야 했던 상처에서 시작한 작품 활동은 삶의 전반적인 상실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확장되었고 이를 애도하고 위로하는 방법으로 특유의 감성적인 조형 작업을 매개로 사용한다. 『상처-목걸이(Le collier-cicatrice)』는 유리 작품 겉면에 자연스러운 상처를 만들어내어 내면의 상처를 유리라는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97년 동성애자 권리 운동인 게이 프라이드(gay pride)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에이즈로 사망한 작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 Torres)를 추모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그는 목걸이 작품 1000개를 관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착용한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관객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치유적 행위에 동참하는 한편 또 다른 이차적 작품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Figure 4).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용하며 작품의 완성을 관객들에게 열어놓는 방식은 작품 『소원



Figure 1.  
『7000그루의 떡갈나무』.  
From Gallery label. (2015).  
www.tate.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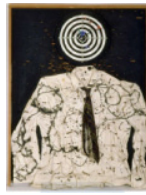


Figure 2.  
『내 연인의 초상』.  
From Park. (2016). p. 24.



Figure 3. 『타로 공원』.  
From Jeon. (2014). p. 54.



Figure 4. 『상처-목걸이』.  
From JEAN-MICHEL OTHONIEL. (n.d.).  
www.plateau.or.kr



Figure 5.  
『소원을 비는 벽』.  
From Han. (2013). p. 68.



Figure 6.  
『살아 있는 생명체』.  
From Lee. (2017). p. 58.

을 비는 벽(The wishing wall)에서 극대화되었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전시되었던 붉은색의 벽은 유황, 인, 왁스 등의 유동적인 재료를 활용한 그의 실험적인 초기 작업이다. 표면에 인이 칠해진 대규모 벽면과 함께 비치된 성냥개비로 관객들은 벽 표면을 긁어내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빌며 작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Figure 5). 전시 기간 동안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생성된 상처의 흔적들은 하나의 드로잉으로서 재탄생되며 이 기념비적인 퍼포먼스는 작가와 관객들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하나의 치유과정으로 확장된다.

브라질의 설치 예술가 에르네스토 네토(Ernesto Neto)는 자연과 생명체의 형태에서 차용한 독특한 형태의 대형 설치 작업을 하였다. 천장으로부터 길게 늘어뜨린 설치물 내부에 다양한 색상의 향신료를 가득 채우는 독특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는데 카민(cammine), 칠리(chili), 정향, 후추, 심황, 라벤더 향, 아나토(annatto) 등 주로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로 제작한 이국적 향신료를 주로 사용했다.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한 향신료를 전 세계 관람객들을 대상으

로 후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와 관습, 문화를 알리고자 의도한 것이다(Lee, 2017). 그는 후각적, 촉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자발적 참여로 체험이 가능한 다감각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작품을 설치한다. 그는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형성하고 관객들이 공간 속에서 작품 소재를 다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브라질 정체성을 교감하게 하려는 목적인 동시에 관람객들이 설치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치유를 얻도록 하는 것에도 목적을 둔다. 작품 『살아있는 생명체(Anthropodino)』는 그의 작품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그의 활동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치물이다(Figure 6). 2009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기둥 밑에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열대성 향신료로 가득 채운 등그런 주머니가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터널들을 만들어서 관객들이 직접 터널에 들어가 내부 구조를 관찰하고 다감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기적 작품 공간은 관객들이 휴식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

<Table 1>에서 분류한 감각(오감),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아홉 개의 치유 요소를 바탕으로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미술 표현 특징을 도출하였다.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미술은 모두 감각 요소를 활용하는데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감각 요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다감각적 특징을 가진다. <Figure 1>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거나 <Figure 2>와 <Figure 5>와 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품을 완성시키는 반복적 특징을 표현하는데 작품에 작가의 의도가 담긴 은유적 이미지를 노출시켜 상징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작가들은 작품의 창조 과정을 통하여 자아탐구 혹은 내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경험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프로이트가 제안한 방어기제 중 하나인 승화가 발현되며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점이다. 작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유희적인 체험을 제공하며 사용되는 미술 매체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형성한다. 회화, 사진, 조각, 퍼포먼스 등 사용하는 매체와 관계없이 미술작품은 공간성을 지니며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 치유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작가와 작품을 통해 분석한 각각의 특징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Table 3).

### III. 치유적 관점으로 본 현대패션

#### 1. 치유적 관점의 현대패션 흐름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패션 컬렉션, 패션 퍼포먼스, 패션 필름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치유적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현대미술이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치유를 확산시켰다면 현대 패션은 디자이너의 자전적 작품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치유하기보다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혹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는 대중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업계에서 치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도출하기 위해 보그, 바자, 더블유, 엘르([www.elle.co.kr](http://www.elle.co.kr)), 마리 끌레르, 얼루어 등 패션 전문 매거진 웹사이트와 패션엔, 패션비즈, 하입비스트, 스타일리스트([stylist.co.uk](http://stylist.co.uk)) 등의 패션 전문 웹사이트, 『뉴욕타임즈(Newyorktimes)』, 『비즈바쉬(Bizbash)』, 『허핑턴포스트(Huppingtonpost)』 등의 매거진 속 패션 카테고리를 토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자료 검색을 진행하였다. 논문의 주제인 치유를 해당 사이트에 검색한 후 도출되는 연관 검색어를 기준으로 검색 키워드의 범위를 ‘휴식(rest)’, ‘테라피(therapy)’, ‘추모

Table 3.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미술 특징 분류.

작가	작품	치유 요소
요셉 보이츠	7000그루의 떡갈나무	감각, 창조, 반복, 상징, 긍정, 공간
니키 드 생팔	내 연인의 초상	감각,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공간
	타로 공원	감각,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장 미셸 오토니엘	상처-목걸이	감각, 창조, 승화, 상징, 전환, 공간
	소원을 비는 벽	감각,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에르네스토 네토	살아 있는 생명체	감각, 창조, 상징, 유희, 긍정, 공간



다감각,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cherish the memory)', '긍정적(positive)' 등으로 확대시켰다. 키워드 검색 결과, 치유적 관점의 현대 패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패션업계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테러, 인종차별적 흉악 범죄, 동성애 차별에서 비롯된 범죄와 같은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테러리즘(terrorism) 피해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패션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인 패션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자연환경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패션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 상실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팽배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며 심리적 상처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상황에서 받은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유희성을 강조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치유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힐링의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 패션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패션업계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치유하고 있다. 현대미술이 치유적 기능을 가지는 것처럼 현대 패션도 치유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션이 치유하는 형태를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자연환경 치유', '정서적 불안감 치유'로 분류하여 사례 분석하고 치유적 관점의 현대 패션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 2. 치유적 관점의 현대패션

### 1)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2000년대 초반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를 시작으로 무장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테러는 그 타격이 반격할 능력이 없는 일반 대중들로 변화하여 더 큰 공포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Kim & Kim, 2017). 현재 21세기는 무장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테러 외에도 성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 차별 등 다양한 차별에서 비롯된 흉악범죄 형태의 테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 이외에도 대규모의 자연재해와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에는 테러리즘 혹은 재난 상황의 대상이 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형성되었고 패션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네팔 출신의 디자이너 프라발 구룽(Prabal Gurung)은 본인의 2016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2015년 발생한 네팔의 대지진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네팔의 지진 사태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바탕으로 컬렉션을 진행하였으며 쇼의 시작 전에 예복을 입은 승려들이 단체로 나와 기도를 하는 전통적인 종교적 퍼포먼스를 통해 네팔 지진 피해를 추모하고 피해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였다(Figure 7). 침묵 속에서 진행된 기도 퍼포먼스를 관람한 패션쇼 관객들은 청각, 시각적으로 몰입된 공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였고 퍼포먼스를 통해 일차적으로 표현된 치유적 메시지는 같은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몰입한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치유의 방향이 확산된다.

컬렉션에 승려들을 등장시켜 추모하는 퍼포먼스는 지방시(Givenchy)의 2016 봄/여름 컬렉션에서도 진행되었다. 컬렉션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가 잘 보이는 허드슨 강변(Hudson River)에서 진행되었다. 패션쇼가 시작

되기 전에 티베트(Tibet) 승려들이 등장하여 기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 이 퍼포먼스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컬렉션은 초대받은 셀러브리티(celebrity)뿐 아니라 약 1,200명의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었고 추모의 메시지는 허드슨강 변에서 쇼를 관람한 수많은 대중들에게 확산되며 추모의 메시지를 인지한 대중들은 서로 치유의 감정을 공유하였다. 승려들의 퍼포먼스 이외에도 치유적 관점의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가 이끄는 7명의 아티스트들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를 컬렉션 공간 곳곳에서 진행하였다(Figure 8). 디자이너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는 컬렉션의 애프터 파티장에 내온사인으로 'I Believe in the Power of LOVE'라는 문장을 표현하였고 이는 이번 컬렉션이 추모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치유적 컬렉션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컬렉션을 구성하는 모든 룩(look)은 순결과 경건함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이는 911테러를 추모하는 의미인 동시에 뉴욕이 지니고 있는 아픔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패션 분야는 무차별적 민간인 테러 이외에도 인종차별적 흉악 범죄로 인한 테러, 성별 차별 혹은 동성애 차별에서 비롯된 테러의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 출신 디자이너 커비 장 레이몬드(Kerby Jean Raymond)가 이끄는 파이어 모스(Pyre Moss)의 2016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흑인 인권의 실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쇼를 진행하였다. 이중구속(double bind)을 주제로 경찰들이 인종차별적 시선으로 흑인들을 바라보고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을 고발하며 흑인 인권의 실상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하였다. 쇼의 시작 전에 경찰들의 잔인한 폭행을 담은 영상을 틀면서 대중들에게 주제를 각인시켰으며 <Figure 9>와 같이 모델이 런웨이를

걸을 때 'MY DEMONS WON TODAY IM SORRY'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직접적인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차별의 피해자들을 승화적으로 치유했다. 다소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주제이지만 흑인 힙합(hiphop) 아티스트의 노래 'Trap niggas'를 부르는 합창단을 컬렉션에 등장시켜 다감각적인 공간을 구성하였고 관객들이 보다 부드럽게 승화된 감정을 전달받았다. 또한 디자이너는 흑인으로서 본인이 겪는 문제들을 컬렉션을 통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승화시켰으며 관객들로 치유의 대상을 확장시켜 치유의 감정을 전달하였다.

2016년 9월 6일 뉴욕 패션쇼 무대에 염산 테러를 당해 얼굴 화상을 입은 인도 여성 레시마 쿼레시(Reshma Khureshi)가 등장하였다(Figure 10). 인도의 비정부단체 '상처 아닌 사랑을 만들자(Make Love Not Scars)'가 주최한 이 패션쇼에서 산성 물질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은 인도 여성이 모델로 무대에 올랐으며 산성 물질 테러 방지 운동을 패션쇼를 통해 전달하였다. 인도에서의 산성 물질 테러로 매년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단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도 하지만 패션쇼를 통하여 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같은 심리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이 직접 패션쇼에 등장하면서 본인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깨닫고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치유적 효과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아름다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받고 그들이 치유받는 과정에 몰입함으로써 결국에는 치유가 확산되어 함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 2) 자연환경 치유

최근 패션 업계는 에코 슈머(ecosumer), 컨서스

패션(conscious fashion), 비건 패션(vegan fashion) 등 환경과 동물 보호에 집중하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패션 산업이 많은 온실가스와 폐수를 배출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패션업계는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자연환경 치유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0월 구찌(Gucci)의 모피 제품 생산 중단을 시작으로 버버리(Burberry), 아르마니(Armani), 지미 추(Jimm Choo), 톰 포트(Tom Ford),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베르사체(Versace) 등 다수의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들이 ‘퍼 프리(fur free)’를 선언하였다. 또한 런던 패션 위크는 2018년 9월에 개최된 패션쇼를 기점으로 모피로 제작된 모든 옷을 런웨이에서 금지시키며 윤리적 패션을 강조하였다. 2019년 2월에는 최초로 비건 패션 위크(vegan fashion week)도 개최되었는데 인간의 삶과 동물의 권리, 환경 존중 등의 문제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트렌드와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윤리적 패션을 선보였다.

프랑스 브랜드 샤넬(Chanel) 역시 2018년 동물 가죽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의 중단을 선언하며 비건 패션에 합류하였다. 브랜드는 환경에 무해한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 하겠다고 밝히며 브랜드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였다. 샤넬은 퍼 프리 선언 이전에도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에서 느끼는 행복감 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베르동 협곡(Gorges du Verdon)의 거대한 절벽과 폭포, 강을 그대로 재현하여 대중에게 생동감 있는 대자연의 공간을 제공하였다(Figure 11).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대자연에서 느낀 행복감을 전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컬렉션 세트장을 구성하였으며 디자이너의 자연 치유적 철학이 반영된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 관객들이 시각적, 청각적으로 작품에 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미국 기반의 브랜드 3.1 필립 림(3.1 Phillip Lim)

은 2016년 봄/여름 컬렉션 공간에 ‘Seven Earth Mountain’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퇴비 흙더미를 세트장에 등장시켜 ‘Stop and smell the flowers’라는 자연친화적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였다(Figure 12). 거대한 퇴비 설치물은 관객들이 시각적, 후각적 자극을 통해 디자이너의 기획 의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관객들은 공감각적으로 구성된 공간을 컬렉션의 진행과정 속에서 체험하였다. 쇼가 끝난 이후 퇴비의 30%는 뉴욕지역사회의 정원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기부되었으며 나머지는 ‘Perfect Earth Project’에 기부되었다. 컬렉션의 공간 구성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컬렉션에서 파생된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 치유를 단순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19 가을/겨울 컬렉션을 앞두고 필립 림은 동물의 가죽,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퍼 프리’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생태계 보호와 치유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영국의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윤리적인 패션을 지지하며 자연환경 치유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동물보호를 위한 모피, 가죽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여 컬렉션을 진행, 재생 가능하고 생분해성이 뛰어난 바이오 아세테이트(bio acetate) 소재를 사용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캠페인 계획을 밝히며 폭넓은 방법으로 자연 치유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9 가을/겨울 컬렉션에서는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연 치유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 22일 그녀는 본인의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셀프 촬영한 영상을 ‘#ThereSheGrows’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며 릴레이 자연 기부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Figure 13). ‘ThereSheGrows’는 자신이 소중한게 생

각하는 사람과 인도네시아의 르우제르(Leuser)의 생태계를 위하여 나무를 기부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영상으로 올리며 다른 대상을 지목해 릴레이로 기부행위를 이어나가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캠페인이다. 스탈라에 의해 시작된 캠페인은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 기네스 펠트로(Gwyneth Paltrow), 드류 베리모어(Drew Barrymore) 등 유명인들에 의해 확산되었으며 캠페인은 같은 해 3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정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19 가을/겨울 컬렉션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의 연장선상으로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들의 타투에는 ‘Vegan’, ‘There is No Planet B’, 지구 모양의 ‘SOS’ 등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며 환경보호와 치유에 대한 책임감을 대중들에게 전달하였다.

펑크(punk) 패션을 대표하며 동시에 환경 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15년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와 주도한 ‘북극 살리기(Save the arctic)’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Figure 14).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입은 셀러브리티들이 사진전에 참여했으며 이는 워털루역(Waterloo)의 에스컬레이터 벽에 전시되었다. 그녀는 대중적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들이 북극 보호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2019 가을/겨울 컬렉션에서는 70억 인구가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길 위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린피스 회장 존 사우벤(John Sauven)을 패션모델로 등장시켜 관객들에게 환경 보호 메시지와 경각심을 전달하였다. 모델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하고 있던 플레이잉 카드(playing card) 캠페인의 내용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읊으면서 쇼를 진행하였으며 플레이잉 카드 홍보영상에서는 ‘Collect the cards, Connect the

cards!’ 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캠페인 제품 및 카드 구매를 통해 자신의 환경친화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 3) 정서적 불안감 치유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과 팽배한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혐오와 폭력, 강박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한 문제가 되었으며 사회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위기상황을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로부터 기인한 정서적 피로감과 불안감을 치유하기 위해 패션 산업은 대중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유희적이고 긍정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14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오프닝 세레머니(Opening Ceremony)는 흰색 무대 벽에 2000파운드가 넘는 양의 초콜릿을 녹여 만든 흘러내리는 분수를 배경으로 하였다(Figure 15). ‘윌리 웅카와 초콜릿 공장(Willy Wonka & The chocolate factory)’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한 이 컬렉션은 관객들의 동심을 자극하며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정서를 유희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거대한 초콜릿 분수를 배경으로 시작적인 몰입 유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는 초콜릿 상자와 핫초코가 담긴 머그잔을 제공하여 시각, 촉각, 미각을 활용한 공감각적 공간을 제공하여 컬렉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며 컬렉션이 끝난 이후 관객들이 무대에 직접 올라와 초콜릿 분수에서 초콜릿을 맛보기도 하고 인증 샷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객 참여 이벤트를 계획했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유희적인 경험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차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컬렉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대중들과 경험을 나누고 치유적 정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크뮈스(Jacquemus)의 시몽 포트 자크뮈스(Simon Porte Jacquemus)는 『더블유 코리아(W Korea)』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패션이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매개체인 하지만 옷을 통해 전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단순함의 행복’이며 인생의 만족은 결국 행복에서 오는 것이라고 자신의 패션 철학을 설명했다. 프랑스 남부 전원 지역 출신의 자크뮈스는 ‘과일과 채소, 잔디밭은 누비는’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감성의 디자인을 컬렉션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정적이고 편안한 행복을 목표로 하는 그의 긍정적인 철학은 2019 가을/겨울 시즌에 진행된 남성 컬렉션에서도 드러났다. 프랑스 워크웨어(workwear)를 기반으로 한 르웨니에(Le Meunier)라는 타이틀로 전개되었으며 모델들은 시골 빵집 청년, 농장 일꾼 등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했고 컬렉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빵, 치즈, 커피 등을 아침으로 먹으며 의복을 실생활에 편안하게 녹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관객들은 쇼 초대장과 함께 투박한 시골 빵을 받았으며 소박하고 여유로운 아침상이 차려진 시각과 미각이 강조된 공감각적인 세트장에서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었다(Figure 16). 특유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정서의 컬렉션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바쁘고 여유 없는 일상과 불안감에 지친 관객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며 삶을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였다.

이와 또 다른 방식으로 패션은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유희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 랄프 로렌(Ralph Lauren)의 2015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테크놀로지와 패션의 만남을 강조하며 뉴욕 센트럴 파크 체리힐 호수(New York Central Park Cherry Hill)에서 4D 프로젝션으로 런웨이 쇼를 진행하였다. 워터 스크린(water screen)에 그래픽 효과로 만들어진 뉴욕 거리의 이미지를 프로젝트 빔으로 투사하여 첨단기술을 결합한 유희적인 콘텐츠를 제공하

였고 실제 랄프로렌의 향수를 뿌려 시각, 후각, 청각을 자극 시키는 거대한 4D 가상공간을 구성하였다. 4층 높이의 홀로그램 효과를 활용한 거대한 세트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델들의 움직임은 실제 움직임과 CG를 함께 믹스(mix)한 형태였으며 관객들은 거대한 세트 구성에 압도되는 동시에 다감각적인 공간에 몰입하며 유희적 체험을 경험하였다. 센트럴 파크 위에서 진행된 컬렉션은 쇼에 직접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어 치유의 대상을 확장시켰으며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촬영한 컬렉션 이미지를 공유하는 ‘#POLO4D’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이차적으로 재생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Figure 17). 뉴욕 피프스아비뉴(Fifth Avenue)에 새롭게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에 커피숍을 구성한 랄프 로렌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대중들에게 편안하고 유희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치유 정서를 전달한 컬렉션을 뒷받침해준다.

하나의 하우스, 다양한 목소리(One house, Different voices)라는 슬로건으로 2018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브랜드 몽클레르 지니어스(Moncler Genius)는 다양한 디자이너를 통해 폭넓은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2019년 가을/겨울 컬렉션은 9개로 나뉜 다양한 컨셉의 방을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 공간을 체험하고 작품을 관람하는 참여 형태로 구성되었다. 특히 프란체스코 라가치(Francesco Ragazzi)의 팜 엔젤스(Palm Angels) 컬렉션은 관객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패딩을 입고 서있는 마네킹에 스프레이가 분사되어 작품을 완성시키는 참여적 퍼포먼스를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유희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Figure 18). 각자의 세계관을 몽클레르 철학과 연결해 다양한 쇼를 선보였으며 관객들은 다감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지니어스 빌딩 공간 안에서 다양한 컬렉션을 체험하였다. 몽클레르의 회장이자 CEO인 레오



Figure 7. 프라발 구룡.  
From Shi. (2015).  
<http://www.bizbash.com>



Figure 8. 지방시.  
From Givency Spring/Summer 2016.  
(2015).  
<http://www.nyteytedesign.com>



Figure 9. 파이어모스.  
From Barnard. (2016).  
<http://www.papermag.com>



Figure 10. 상처 아닌 사랑을  
만들자 패션쇼.  
From Kim. (2016).  
<http://www.huffingtonpost.kr>



Figure 11. 샤넬 2018  
봄/여름 컬렉션.  
From "Chanel Spring Summer  
2018". (2017).  
<http://www.youtube.com>



Figure 12. 3.1 필립 림 2016  
봄/여름 컬렉션.  
From Martinez. (2015).  
<https://www.obser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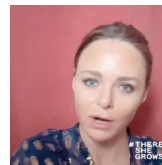


Figure 13. 캠페인 홍보.  
From StellaMccartney. (2018).  
<http://www.instagram.com>



Figure 14. 워털루역  
북극 살리기 전시.  
From Hall. (2016).  
<http://www.stylist.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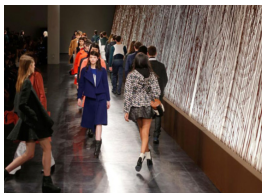


Figure 15.  
오프닝 세레머니 무대.  
From Shi. (2014).  
<http://www.bizbash.com>



Figure 16.  
자크뤼스 퍼포먼스.  
From Dabrowski. (n.d.).  
<https://www.ww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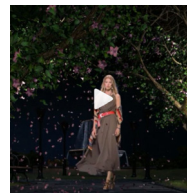


Figure 17.  
#POLO4D.  
From Davidlauren. (2014).  
<http://www.instagram.com>



Figure 18.  
팜 엔젤스.  
From Kim. (2019).  
<https://www.hypebeast.kr>

루피니(Remo Ruffini)는 몽클레르 지니어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고객들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즌, 나이, 취향에 관계없이 몽클레르 브랜드의 철학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Hong, 2019).

이처럼 패션은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고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전반의 부정적 정서를 치료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3.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패션 표현 특성

현대패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현대미술의 표현 특징에서 도출한 아홉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패션의 치유 주제 유형에 따라 정리하였다(Table 4). 각 유형별로 4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된 특징은 다각각, 창조, 상징, 전환, 긍정, 공간이며 유형별로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 특징(승화, 반복, 유희)을 표현 특성으로 도출하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유형에서는 승화성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었다.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

Table 4.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패션 표현 특성 분석표.

분류	브랜드	특징									특성 도출	
		다감각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프라발 구룡	○		○	○	○	○		○	○	다감각 창조 상징 전환 긍정 공간	승화성
	지방시	○		○	○	○	○		○	○		
	파이어 모스	○		○	○	○	○		○	○		
	상처 아닌 사랑을 만들자	○		○	○	○	○		○	○		
자연환경 치유	샤넬	○	○	○		○	○		○	○		반복성
	3.1 필립 림	○	○	○		○	○		○	○		
	스텔라 매카트니	○	○	○		○	○		○	○		
	비비안 웨스트우드	○	○	○		○	○		○	○		
정서적 불안감 치유	오프닝 세레머니	○		○		○	○	○	○	○		유희성
	자크뫼스	○		○		○	○	○	○	○		
	랄프로렌	○		○		○	○	○	○	○		
	몽클레르 지니어스	○		○		○	○	○	○	○		

하기 위해 종교적 퍼포먼스, 행위 예술가 퍼포먼스, 합창단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관객들이 컬렉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승화성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예술을 매개로 피해자를 치유하고 추모하기 위한 직접적인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다.

## 2) 자연환경 치유

자연환경 치유 유형에서는 반복성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었다. 압도적인 컬렉션 세트장 구성 혹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방법보다는 디자이너가 직접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캠페인에 등장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 관객들의 치유 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디자이너로부터 선행된 자연 치유 행위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확장되고 실질적인 자연환경 치유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활동은 보통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진다.

## 3) 정서적 불안감 치유

자연환경 치유 유형과 동일하게 정서적 불안감

치유 유형에서도 관객들에게 컬렉션을 관람하는 것 이외의 체험적인 요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유희적인 체험, 따뜻한 정서의 휴식공간을 형성, 과학기술을 결합한 체험 등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불안감을 치유했으며 이는 유희성이라는 특성으로 정리된다.

## IV. 결 론

최근 치유산업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치유를 주제로 표현 특성을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참여적 치유 관점의 현대 패션 사례를 분석하고 표현 특성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표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치유적 관점의 현대미술에서 치유적 표현 특징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사례를 분석하였다. 치유 미술 관련 논문을 통해 분류한 치유의 요소를 참고하여 현대 미술의 치유적 특징을 다감각, 반복, 창조, 승화, 상징, 전환, 유희, 긍정, 공간으로 도출하였다. 치유적 관점의 현대 패션 사례는 패션이 주로 다루고 있는 치유적 주제인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 치유, 자연환경 치유,

정서적 불안감 치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에 차이를 보였다.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은 다감각, 창조, 상징, 전환, 긍정, 공간이며 이는 패션이 사회를 반영하는 입체적인 예술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된다는 특징을 반영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테러리즘과 재난 피해를 치유하는 사례에서는 승화성이 도출되었다. 추모적 성격이 짙은 주제에 맞추어 장엄하고 무게감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관객들의 몰입을 도왔으며 상처와 피해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며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켜 치유를 구현하였다. 둘째, 자연환경을 치유할 때는 반복성이 중점적으로 드러났다. 디자이너가 먼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고 컬렉션, 캠페인,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치유를 확산시켰다. 셋째, 정서적 불안감을 치유하는 사례에서는 유희성이 도출되었으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희적 체험을 유도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과 과시적 소비와 같은 패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컬렉션 및 퍼포먼스에 집중하여 사례 분석하였으나 패션 필름, 전시, 브랜드 캠페인, 마케팅 등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활용한 치유적 패션의 범위를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착용 행위를 통한 직접적인 참여 과정을 연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패션의 치유적 기능을 다룬 본 연구를 통해 패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길 바라며 후속 연구로서 다양한 영역의 패션을 치유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착용이라는 패션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관심 있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Barnard, C. (2016, July 29). Kerby Jean-Raymond of Pyer Moss on Work ethic and Making More Than a Just a Statement. *Paper magazine*.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www.papermag.com/kerby-jean-raymond-of-pyer-moss-on-work-ethic-and-making-more-than-a-j-1949043724.html?slide=qoZTak>
- Chanel Spring Summer 2018 Full Fashion Show Exclusive. (2017, October, 4). *Youtube*.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cQC8Cyu3lqc>
- Cho, N. R. (2011). *Research on self-healing through painting: In relation bulb artistic presentation with own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Choi, Y. M. (2007).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for the healing environment of dementia facilities considering multi-sensory stim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Dabrowski, K. (n.d.). Jacquemus Men's Fall 2019. *WWD*. Retrieved May 1, 2019, from <https://wwd.com/beauty-industry-news/beauty-features/gallery/backstage-at-jacquemus-mens-fall-1202977281/#!5/backstage-at-jacquemus-mens-fall-2019-5>
- Davidlauren. (2014, September 9). *Instagram*.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www.instagram.com/p/suUwuzSed/?utm\\_source=ig\\_web\\_copy\\_link](https://www.instagram.com/p/suUwuzSed/?utm_source=ig_web_copy_link)
- Gallery label. (2015, November). Joseph Beuys 7000 Oak Trees 1982. *Tate*. Retrieved May 3, 2019, from <https://www.tate.org.uk/art/artworks/beauys-7000-oak-trees-ar00745>
- Givenchy Spring/Summer 2016. (n.d.). *John Torres nyteytedesign.com*.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www.nyteytedesign.com/new-gallery-3>
- Hall, H. (2016). Vivienne Westwood launches star-studded Save the Arctic Campaign. *Stylist*. Retrieved April 19, 2019, from <https://www.stylist.co.uk/life/vivienne-westwood-launches-star-studded-save-the-arctic-campaign-featuring-kate-moss-naomi-campbell-and-david-gandy/60901>
- Han, K. C. (2013).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formative arts in terms of healing: Revolved around the view of circular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yeonggi.
- Hong, S. H. (2019, February 7). 몽클레르, 8色 컬렉션 모은 '몽클레르 지니어스' 공개 [Moncler, 'Moncler Genius' which collect 8 color collection]. *Fashionbiz*. Retrieved May 1, 2019, from <http://www.fashionbiz.co.kr/TN/?cate=2&recom=2&idx=170751>
- Jang, S. Y., & Ha, J. S. (2018, November). 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 :자폐, ADHD 아동용 무게감 있는 재킷을 중심으로 [Fashion design study for spiritual healing: Focused on heavyweight jacket of autism and ADHD childre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Autumn Conference*, Seoul, 123-124.
- Jang, Y. J. (2016). *치유적 방법을 통한 미술교육 연구: 니키*



- 드 생 팔의 작품을 중심으로 [Research on art education through healing methods: Focused on Niki de Saint Phal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JEAN-MICHEL OTHONIEL. (n.d.). PLATEAU. Retrieved May 4, 2019, from <http://www.plateau.or.kr/en/html/current/current-exhibition.asp>
- Jeon, Y. S. (2014). *Study on the healing nature of modern art: Focused on four modern artis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H. J. (2015). *A study on art care space design reflecting therapeutic multi-sensory stimulating ele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H. S. (2013).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unology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J. A. (2011). A study on natural element application method for creating healing environment in hospital's interior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5), 245-253.
- Kim, K. M. (2019, February 21). 매튜 윌리엄스가 합류한 '몽클레르 지니어스' 프로젝트의 9가지 컬렉션 보기 [See the 9 collection of moncler genius project Matthew Williams joined]. *HYPEBEAST.KR*.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s://hypebeast.kr/2019/2/moncler-genius-one-house-different-voices-collections-matthew-williams-alyx>
- Kim, N. D. (2017). *Trend Korea 2018*. Seoul: Miraebok.
- Kim, S. H., & Kim, Y. (2017).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Focused on the collections since the 201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4), 67-85. doi:10.18652/2017.17.4.5
- Kim, T. W. (2016, September 10). 염산 테러당한 인도 여성이 뉴욕패션위크에서 모두를 감동시켰다 [An Indian woman who was attacked with hydrochloric acid touched everyone in New York Fashion Week]. *Huffingtonpost.kr*.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9/10/story\\_n\\_11944398.html](https://www.huffingtonpost.kr/2016/09/10/story_n_11944398.html)
- Lee, B. Y. (2011). *Analytical psychology*. Seoul: Ilchokak.
- Lee, J. M., & Kim, H. Y. (2019).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fashion products for hea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9(1), 55-73. doi:10.18652/2019.19.1.4
- Lee, S. E. (2018). *Protocol development of the study of fashion therapy mechan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Y. (2017). *A study of the formative expression of healing and life circularity: By the use of stocking materi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Y. J. (2015). *Research on works as practice for self-healing: An essay on my works from alienation to hea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Martinez, A. (2015, September 15). Artist Maya Lin Sculpts an Earthy Runway for Phillip Lim's 10th Anniversary Show. *Observer*. Retrieved May 1, 2019, from <https://observer.com/2015/09/artist-maya-lin-sculpts-an-earthy-runway-for-phillip-lims-10th-anniversary-show/>
- Monz, A. & Monz, J. (2001). *Design a therapie raumgestaltung in krankenhausern, kliniken, sanatorien* [Design as therapy: Interior design in hospital, clinic, sanatorium]. Leinfelden-Echterdingen: A. Koch.
- Na, Y. M. (2015).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Noh, H. J. (2012). *Study of self-healing properties of repetition in art therapy: Focusing on works of Yayoi Kusam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K. S. (2012). *A study on the self-healing painting reflecting personal experience: Author's works as th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Y. S. (2016). *A study on the pictorial representation of psychological defense mechanism: Focusing on the <Secret room> se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Ryu, J. Y. (2018). *Creation activities and ego-healing through memory: Focusing on my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hi, J. (2014, February 20). 11 Inspiring Set Designer From New York Fashion Week. *BizBash*.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s://www.bizbash.com/experiential/media-gallery/13480194/11-inspiring-set-designs-from-new-york-fashion-week>
- Shi, J. (2015, September 30). Fashion Week Recap: The Most Inspiring Ideas From the Shows and Events. *BizBash*. Retrieved May 1, 2019, from <https://www.bizbash.com/experiential/media-gallery/13481282/fashion-week-recap-the-most-inspiring-ideas-from-the-shows-and-events>
- Son, N. Y. (2009). *Aesthetic investigation in ordinary life: Artistic healing ges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ong, E. K. (2014). *Awareness of group art therapy survey therapeutic fa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Song, S. H. (2010). *A study on art therapy through self-recollection: Focused on Lee Jung Sub and Frida Kahlo*.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Song, S. K. (2013). *A artwork produced by trauma and emotional circulation: Focused on my own art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Stella McCartney. (2019, February, 2). *Instagram*. Retrieved May 3, 2019, from [https://www.instagram.com/stellamccartney/?utm\\_source=ig\\_embed](https://www.instagram.com/stellamccartney/?utm_source=ig_embed)
- Yoon, J. Y. (2014).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y types of modern fashion design through Roger Caillois'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Yoon, N. Y. (2010). *A study on the self healing of autobiographical art creation: Focused on one's own art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Gyeonggi.

## Contemporary Fashion from a Participative Healing Perspective

Kim, So Hee · Kim, Yoon<sup>+</sup>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 Textile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sup>+</sup>

### Abstract

One of the notabl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society is that society emphasizes positive emotions to people in various ways. Recently, the healing industry using arts such as painting, music, and dance has been growing rapidly. Fashion is also a social human behavior by means of fashion. It reflects the times and coexists with the reality, and thus it is developing following the social trend of hea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based on the concept of participatory healing and to turn the negative image of fashion as the main culpri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stentatious consumption into a positive one of the healing concept.

To build a theoretical found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mporary art of a participative healing perspective and based on healing elements it derived the expressive features. Based on the expressive features derived from contemporary art, the contemporary fashion trend from the participative healing perspective was examined and then expression analysis criteria were set up and cas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cases of terrorism and disaster damage healing, natural environment healing, and emotional anxiety healing according to the target of heal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presentative expressive characteristics. First, in the type of terrorism and disaster damage healing, sublimation characteristics were predominant, and healing messages were delivered using multiple senses. Second, the type of natural environment healing has developed a healing perspective fashion, focusing on repetition and participation. Third, in the emotional anxiety healing type, the playful characteristics using space were derived and in general, technology-based virtuality was emphasiz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ncourages a positive view of fashion through the healing function of fashion. It is expected that much interest will be generated in the healing fashion industry in the future.

Key words : healing of contemporary art, healing ability of fashion, participative healing